



극단 현장의 <년 프로다> 극본을 공동집필한 '글패 어문우백김'.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이 극본에 담았다. 오른쪽은 극단 현장의 <년 프로다>의 한 장면.

강창광 기자

94.11.8

직장여성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고민·갈등·차별 정면으로 다룬 연극·영화·책 부쩍 늘어나

김미경 기자

'일로 승부를 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새 유형의 연극·영화·책 제작이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문제를 다루는 공연물들이 주로 결혼·사랑 이야기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들의 치열한 고민을 진지하게 다루는 새로운 양태로 바뀌고 있다.

빛나간 프로의식 파헤쳐

이런 시도는 여성과 관련한 주제라면 사랑·결혼·부부관계·자녀문제 등을 떠올리던 종전의 일반적 통념을 깬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9일부터 12월18일까지 서울 동숭동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막을 올릴 극단 '현장'의 연극 <년 프로다>는 20대 후반 여성들이 취업과정에서 받는 차별과 빛나간 프로 의식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프로의 남녀도 차별받는다?'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연극은 요즘 젊은 여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프로가 되면 남녀가 차별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장을 낸다.

"대학 졸업 뒤 학원 시간강사를 하다 방송국 프로듀서로 들어간 주인공 재숙이 '프로'로 인정받기 위해 외국 방송 프로그램을 베끼고 방송국에서 원하는 형태로 주제를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과연 여성에게 일은 무엇인가, 무조건 프로가 되는 것만이 올



일로 치열한 고민에 빠진 직장인의 모습은 이제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직장 여성들의 일로 인한 고민을 다룬 공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성 광고 카피라이터의 일을 그린 영화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의 한 장면.

바른 직업인의 모습인가 등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특히 이 연극은 덕성여대 86학번 졸업생 6명이 지난해 9월 모여 만든 '글패, 어문우백김'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모임이 직접 공동 대본작업을 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극단 현장 연극배우인 어연선, 광고회사 '임팩트' 직원 문상숙, 글짓기학원 강사 우순영, 학원 영어 강사 백미선, 여성문화예술기획 기획위원 김은영, 극단 현장 기획 담당 김영숙씨 등 6명이 졸업 뒤 수십장의 이력서를 제출해가며 겪었던 어려움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삭여야 했던 갈등과

분노 등을 그대로 생생하게 쏟아놓았기 때문이다.

<굴레를 벗고서> <그대 안의 블루> 등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를 주로 만들어왔던 이현승 감독이 내년초 개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영화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도 한 젊은 여성 광고 카피라이터가 직장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랑'보다 '일'에 무게중심

그동안 만들어진 여성문제 영화들이 주로 '일이나 사랑이나'의 이분법적 갈등을 뼈대로 했다면 이 영화는 여성의 일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사

랑을 여성이 매몰되거나 자신의 일을 버릴 만큼 엄청난 모습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여자 주인공의 직장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감독의 설명처럼 이 영화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내면의 갈등을 치밀하게 묘사해 다루고 있다.

직장 안에서 여자 선후배간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훈훈한 관계 등을 그려 직장 여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성리더십 주제 책 쏟아져

한편 '편견을 변화시키는 여성 리더' '남성들과의 근무' '여성 조직과의 협력' '여성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등을 담은 책 <커리어 우먼의 리더십-당신의 경쟁력, 자신 있습니까?> (여성신문사 출판)와 '여성 리더의 역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의 4가지 유형' 등을 실은 책 <리더-리드하는 여성, 리드당하는 여성> (도서출판 글사랑) 등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런 유형의 책들은 관리자를 꿈꾸는 직장 여성들을 겨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장 여성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현상은 좋은 삶든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중 속에 아로새기면서 일하는 여성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기 위한 고민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